



눈 쓰레기와의 전쟁 광주시 북구가 29일 북구청 앞 도로에서 불도저 등 중장비를 동원해 폭설 이후 쌓여 있던 잔설(殘雪)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새해 일출 '구름 사이로'

31일과 내년 1월 1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겠지만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이 31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낮은 구름대가 형성돼 구름 사이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는데는 무리가 없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31일 일몰시간으로 광주 오후 5시30분, 여수 5시 28분, 목포 5시 33분, 해남 5시 33분으로 전망했고 새해 첫날인 1일 일출시간으로 광주 오전 7시 41분, 목포 7시 42분, 해남 7시 40분, 여

수 7시 37분으로 예보했다.

31일 낮 최고기온은 광주 6도, 목포 6도, 완도 8도로 예상되며 1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영하 2도, 화순 영하 4도, 목포 3도, 해남 영하 2도로 관측됐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 정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쪽에서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돼 31일부터 1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순천 '와룡 산지습지' 보호지역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7종 등 600여종 서식

순천시 와룡동 '와룡 산지습지'가 국가 내륙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순천 연안습지와 하천습지에 이어 산지습지까지 보호지역에 지정된 것이다.

환경부는 29일 순천시 와룡 산지습지가 국내 30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산지습지는 산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로 산지생태계 내에서 육상생태계와 수생생태계의 순환 매개자 역할을 한다.

와룡 산지습지는 산 중턱에 10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둔 농경지에 자연스럽게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면서 습지 원형으로 복원돼 생태적·학술적으로 보전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발고도 500m에 자리잡은 산지형 저층 습원인 와룡 산지습지는 0.9%의 면적으로 작지만 하류부에는 순천만 연안 습지보호지역과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과 연결돼 산지습지, 하천습지, 연안습지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보전 가치가 크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지난 2017년 환경부가 전국 내륙습지를 정밀조사한 결과 와룡 산지습지에 '자주 망귀개', '꼬마잠자리', '팔색조', '새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7종을 포함해 총 593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와룡 산지습지' 가운데에 있는 오리나무 숲.

확인됐다. 특히 통발과 자주망귀개는 전남 내륙 중 처음으로 발견된 사례이며, 꼬마잠자리의 경우 성충과 유충이 모두 확인돼 습지가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고, '산골조개', '기느무늬하루살이' 등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서식하는 육상곤충 등 고유종 13종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99.9%에 달하는 사유지로 구성된 와룡습지는 소유주가 원할 경우 정부가 매입을 하게 된다.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훼손지도를 복원작업이 진행된다. 습지 생태계 및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탐방로, 탐방센터 등 관광기반 시설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 등 '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 지역 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전남 온실가스 이대로라면... 60년 후 겨울 사라진다

머지 않은 미래에 광주·전남에서 겨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 현재 연간 83일과 92일인 광주·전남의 겨울 일수가 20년후에는 각각 48일과 61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60년이 지나는 21세기 후반이면 광주·전남의 겨울 일수는 모두 '0'일로 겨울이 아예 사라진다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세계적 중 겨울이 사라져 생태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상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와 지난해 산출한 남한 고해상도(1km)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토대로 한 '지역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광주·전남을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를 현재(2000~2019년) 대비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중반기(2041~2060년)·후반기(2081~2100년)로 나눠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전망했다.

'온실가스를 현재처럼 감축하는 경우'(SSP1-2.6·저탄소 시나리오)와 '온실가스를 현재와 비슷하게 배출하는 경우'(SSP5-8.5·고탄소 시나리오)에 따라 증가 폭이 다르지만 광주·전남은 여름·폭염·열대야는 폭증하고 한파는 줄어드는

기상청, 기후변화 '고탄소 시나리오'

현재 年 겨울 일수 83일·92일

20년 뒤 48일·61일로 줄고

21세기 후반 되면 겨울 실종

아열대로 바뀌며 생태계 변화

말라리아 등 전염병 촉발할 것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21.4일인 광주시 폭염일수(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전·중·후반기에 각각 15.5일·24.3일·32.6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19.8일·40.8일·96.7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64.1일의 폭염일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남은 12.2일인 현재 폭염일수가 탄소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21세기 후반에는 21.8일(저탄소 시나리오)부터 84.2일(고탄소 시나리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21세기 후반 열대야(하루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

도 광주·전남에서 모두 증가(광주 11.1일→79.7일, 전남 7.1일→78.5일)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결국 여름일수(하루 최고기온이 25도 이상인 날)는 큰 폭으로 늘고 한파(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는 실종되면서 겨울까지 사라진다는 것이 기상청의 전망이다.

현재 광주·전남의 여름 일수는 각각 139.1일과 121.1일이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21세기 후반에는 광주는 27.1일이 늘고 전남은 30.6일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현재와 같이 탄소 배출량이 지속된다면 21세기 후반 광주·전남은 모두 여름이 2개월(광주 70.3일, 전남 76.7일)이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은 현재 각각 0.4일과 0.6일 한파가 오는데 고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1세기 후반에는 한파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변화는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예상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한반도는 아열대기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국 생태계 변화는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전염병 발생도 촉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동구 겨울철 위기 가구 집중 발굴

내년 2월까지...공적 급여 지원 등 신속 연계키로

광주시 동구가 내년 2월까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겨울철 위기 가구 발굴에 나선다 고 29일 밝혔다.

동구는 이 기간 동안 고시촌 거주자 등 관내 비정형 거주자, 생활 곤란자, 에너지 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보건복지포털센터(129)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차상위·긴급 지원 등 공적 급여 지원 등을 신속하게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 동구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활동가 등을 끌어모아

동별 30여 명 규모의 '위기가구 발굴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생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동구의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해 주는 계획도 세웠다.

임택 동구청장은 "겨울철 돌봄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 실행할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으로 '따뜻한 행복 동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 범	유아교육과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 형 일: 2023. 1. 9(월)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사랑과 감사의 68년 1954~2022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www.kwangshin.ac.kr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